

이슬람 사상의 몇 가지 기본 특성(III)

(4) 개인과 사회 사이의 균형

이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간에 균형을 이룩한 데 있다. 인간의 개성을 믿으며,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아무도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개인의 독특한 발전을 이슬람 교육정책의 제일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사회나 국가 속에서는 개성을 무시해도 되지는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

꾸란에서는 말한다.

“인간은 노력하여 얻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노라.”

(꾸란 53 : 39)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 손들이 얻은 것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은 아직 그들 대다수를 용서하고 계시니라.”

(꾸란 42 : 30)

“진정 알라께서는 한 국민이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들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다.”

(꾸란 13 : 11)

“인간은 그가 행한 선의 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악의 대가를 받으니라.”

(꾸란 2 : 286)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이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할 일이 있나니.”

(꾸란 28 : 55)

반면에 이슬람은 또한 인간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일깨워, 사회나 국가의 일원으로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한다. 이슬람에서 합동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슬림들에게 사회적 훈련을 되풀이하여 가르치고 있다. 모두가 자카트(회사)를 하도록 꾸란에 명령되어 있다. “그가 가진 재산 중에서 필요한 자와 요구하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몫을

베푸는 자라.”

(꾸란 51 : 19)

지하드(Jihad)는 의무로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슬람과 그 국가의 방어와 보호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함을 뜻한다. 사도(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인간은 한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남에 대하여 파수꾼이나 양치기로서, 그 우리 전체에 책임이 있다.”

“서로 등돌리지 말고 사이 좋게 살라. 남에게 이로움을 베풀고 남의 길에서 방해하지 말라.”

“자기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남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이슬람에서는 개인이나 사회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 둘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그 각각에 적절한 의무를 부여한다.

(5) 보편성과 인본주의

이슬람의 메시지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슬람에서 하나님은 전 세상의 하나님이다(꾸란 1 : 1). 그리고 사도(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는 전 인류를 위한 사도이다. 꾸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백성들이여 실로 너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보내셨노라” (꾸란 7 : 158)

“은 백성을 위한 교훈이 되도록 그분의 종에게 꾸란을 계시한 그분께 축복이 있으소서” (꾸란 25 : 1)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만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꾸란 21 : 107)

이슬람에서 모든 인간은 피부색, 언어,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다. 이슬람은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여, 인종, 지위, 부 등의 모든 거짓 장벽을 무너뜨린다. 그러한 장벽이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 심지어 오늘날 소위 문명의 시대에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슬람은 이런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전 인류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선포한다.

사도(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가족을 이루며, 그분의 피조물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

“주님이시여! 저의 생명과 우주만물의 주님이시여! 저는 모든 인간이 서로 형제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족을 사랑하라.”

이슬람은 그 내용과 접근 방법에 있어 국제적이며 무함마드(그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의 도래 이전 시대에 만연했었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뿌리깊은 피부색, 종족, 혈통, 지방 등에 바탕을 둔 차별과 장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전 인류가 하나의 기치 아래 단합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적 반목과 경쟁으로 쪼개진 세계에 생동과 희망과 열광적인 미래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역사가 토인비는 ‘문명의 시련(Civilization on Trial)’이라는 저서에서 이에 관해 흥미로운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가족을 이루며,
그분의 피조물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

“오늘날 우리 서양 사회에서 이러한 사해 동포주의의 프롤레타리아(즉 서양화된 인류)에 대한 현 관계에 도사리고 있는 명백한 위기의 두 가지 원인—심리적이고 물질적인—은 인종 차별의식과 음주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악을 물리치는 일에 이슬람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정신이 아주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시킬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일 것이다.

무슬림들 간의 인종 차별의식을 없앤 일이 이슬람이 이룩해 낸 훌륭한 도덕적 업적이며,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슬람 미덕을 전파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이슬람의 정신은 이런 문제를 관용과 평화를 우선으로 하여 해결하는 정신요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의 해로움은 서양기업들이 ‘개방시킨’ 열대지방의 원주민들의 경우에 최악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정치 지도자의 막강한 외적 권력으로 내린 예방조치조차도 공동체의 사회악을 없앨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악에서 벗어나려는 욕망과 이 욕망을 각 분야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해당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앵글로 색슨’ 출신인 서양 행정가들은 그들의 인종 차별의식에 입각한 신체적인 ‘인종적 장벽’ 때문에 ‘원주민’의 병동과 정신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또한 원주민의 정신을 개조하는 일을 수행할 더 이상의 능력을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이슬람이 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최근에 급속도로 ‘개방된’ 열대지방에서는 서구문명이 정치적,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사회 정신적인 공백상태를 초래했다...

여기에, 이슬람이, 미래의 최전선에서, 전세계 인류를 통솔하고 있는 서양 사회의 사해 동포주의적 프롤레타리아에 대하여 매우 값진 두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먼 장래에 종교의 몇 가지 새로운 표명에 대한 이슬람의 가능한 공헌을 예상할 수 있다.”

알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셨다.

알라께서는 지구, 태양, 별들 그리고 달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표면이 완전히 텅 비어있는 거대한 행성을 상상해 보아라. 어떠한 인간들도 동물들도 또한 식물들과 곤충들도 없다.

지구는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장식되어왔다. 알라께서는 지구에 이 모든 미세한 것들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 누구도 살지 못했을 것이며 당신이건 당신의 부모이건 당신의 친구들 중 누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알라께서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구를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1. 우주의 모든 것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한 동시에 우

리에게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놓여졌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에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있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물론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2. 알라께서는 또한 지구로부터의 태양의 거리를 아주 합당하게 조정해놓으셨다. 만일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에 더 가까이 있었다면 태양열이 지구를 불태워버리는 나머지 우리는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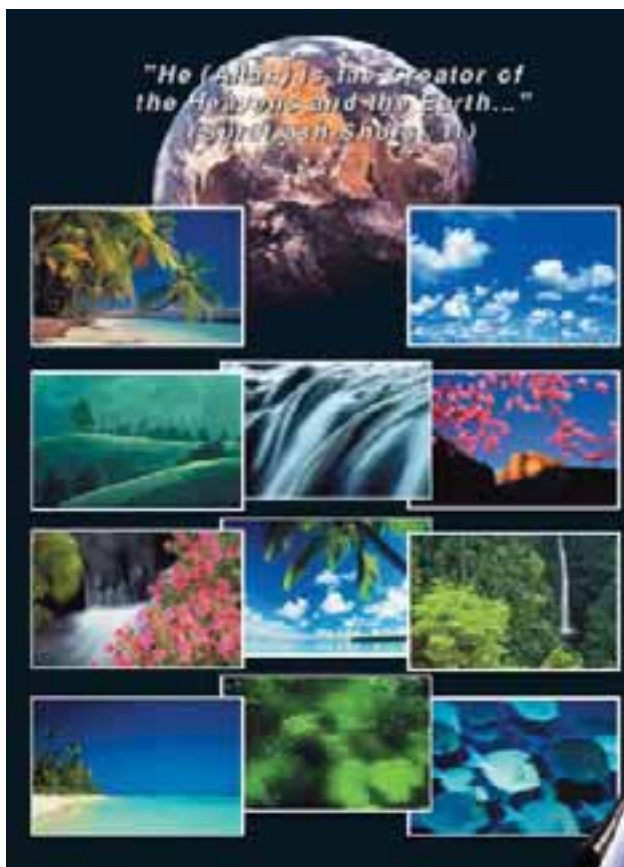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지구가 조금만 더 멀었더라면 빙하가 지구를 덮어버렸을 것이니 이것이 다른 행성들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왜냐하면 다른 행성들은 태양에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다.

3. 당신도 알다시피 생명체들은 살기 위해 호흡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호흡을 할 수 있기 위하여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하다. 만일 산소가 조금 더 많건 더 적었다면 우리는 물론 어떠한 동식물도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우리가 생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는 물이다. 어떠한 유기체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알라께서는 지구의 일부분을 물로 창조하셨던 것이다. 지구 표면의 3/4은 물로 덮여있다. 그러나 다른 행성에는 물이 없다. 생명체를 위한 필수적 요소는 지구상에서만 활

용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의 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만일 이러한 사건들 중 단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생명체도 지구상에 남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천개의 사건들이 저절로 함께 발생하여 지구와 같은 장소를 형성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



리한 사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우연히 발생할 수는 없다. 알라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셨고 바로 이 때문에 지구는 우리를 위한 가장 알맞은 장소인 것이다.

당신은 지구와 전 우주가 우연히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예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가령 당신이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데 큰 파도가 접근해오는 것을 보게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몇 시간 후에 당신이 그 해변가로 돌아와 당신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바로 거기에 모래로 만들어진 멋있는 도시가 생긴 것이다. 집들, 병원들, 공항 그리고 버스들이 있다. 심지어 사람들도 있다. 당신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아느냐고 물어본다. 만일 그가 '해변가에 도착한 큰 파도가 그것들을 만들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환상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거나 아마 미쳐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파도가 그렇게 완벽한 도시를 모래로부터 우연히 만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건축 전문가가 와서 도시를 짓고 떠났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교수들 또는 과학자들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안되는 우스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도가 모래로 만들어진 도시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입자들, 다시 말해서 원자들이 우연히 함께 결합하여 그들 스스로 태양, 별들 그리고 지구를 만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옳은 것들을 믿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해변에서 놀고 있는데 별안간에 큰 파도가 밀려와 당신은 서둘러 집으로 갑니다. 몇 시간 후에 그 해변으로 돌아와서 당신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 해변에 멋있는 모래성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의 큰 파도가 우연히 이 성을 만들었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New Pak Korea International

Leading exporter
M. Shariq Saeed

PH no.: 82-2-2631-8557
Fax: 82-2-2631-8281

http://www.shariq.co.kr
e-mail: shariq@shariq.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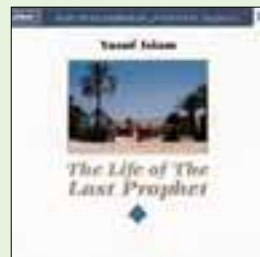
이번 달의 질문

질문: 이슬람은 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리는가?

대답: 이슬람의 많은 모습들이 비무슬림들에 의해 오해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처우에 관하여 이루어진 무지와 잘못된 정보 및 그릇된 추정이야말로 아마 가장 심각한 것일 게다. 꾸란의 무수히 많은 절들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을 구별짓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의 여성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획득한 권리를 이슬람 율법이 1,400년 전에 여성들에게 보장해주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깜짝 놀란다. 예를 들면 이슬람은 여성이 법률 하에서 완전한 한 명의 개인이며 남성과 정신적으로 동등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여성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사업을 하고 동등한 일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그들의 재산에 관한 전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결혼할 수 없으며, 결혼을 한 후에 그들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지니도록 허락받는다. 더 나아가,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시킬 권리를 가지며 무시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는 결혼을 무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슬람은 여성을 “악을 부르는 요부”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죄’에 대하여 여성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예배에 참여한다. 사실상 이슬람이 1,400년 전에 여성들에게 부여한 권리는 서양에서 1,900년대까지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다. 50년 전만 해도 영국과 미국에서 여성은 그녀의 아버지나 남편의 서명이 없이는 집이나 자동차를 살 수가 없었다. 또한 무함마드 사도님(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의 사명 의식이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여성들에 관

한 끄찍한 관행들을 종식시켰다는 것도 언급해두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꾸란은 딸 아이가 태어날 때 딸 아이를 죽이던 아랍 이교도들의 관행을 종식시켰던 것이다. 또한, 이슬람은 그 당시의 아랍인들 사이에서 무제한적으로 행해지던 일부다처제를 제한하였고 그 대신에 여성들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만일 오늘날의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그들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슬람이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무지나 식민주의의 충격으로부터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CD 제작!



우리 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에서는 유스프 이슬람 (Yusuf Islam)이 녹음한 **“마지막 사도님의 일생”**을 한국어판 CD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재정상태가 빈약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적은 돈이나마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은행, 계좌번호 214-047841-12-001/예금주: 일판 자밀
E-mail: muslimkorea@har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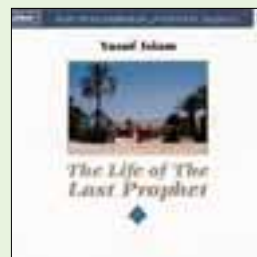
Question of Month

Question: Islam degrades women?

Answer: Even though many aspects of Islam are misunderstood by non-Muslims, the ignorance, misinformation and incorrect assumptions that are made in regards to Islam's treatment of women are probably the most severe. Numerous verses of the Qur'an make it clear that men and women are equal in the site of God.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Islam, the only thing that distinguishes people in the site of God is their level of God-consciousness. Due to this, many people are surprised to find out that Islamic Law guaranteed rights to women over 1400 years ago that women in the Europe and America only obtained recently. For example, Islam clearly teaches that a woman is a full-person under the law, and is the spiritual equal of a male. Also, according to Islamic Law, women have the right to own property, operate a business and receive equal pay for equal work. Women are allowed total control of their wealth, they cannot be married against their will and they are allowed to keep their own name when married. Additionally, they have the right to inherit property and to have their marriage dissolved in the case of neglect or mistreatment. Also, Islam does not consider woman an "evil temptress", and thus does not blame woman for the "original sin". Women in Islam participate in all forms of worship that men participate in. Actually, the rights that Islam gave to women over 1400 years ago were almost unheard of in the West until the 1900s. Less than fifty years ago in England and America, a woman could not buy a house or car without the co-signature of her father or husband! Additionally, Islam gives great respect to women and their role in society --- it gives them the right to own property, marry who they want and many other rights. Also,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Prophet Muhammad's mission stopped many of the horrible practices in regards to

women that were present in the society of his time. For example, the Qur'an put an end to the pagan Arab practice of killing their baby daughters when they were born. Additionally, Islam put restrictions on the unrestricted polygamy of the Arabs of the time, and put many laws in place to protect the well-being of women. Today, most of the so-called reforms in the status of women came about after the West abandoned religion for secularism. Even those in the West who claim to follow the so-called "Judaean-Christian tradition" really follow the values of Western liberalism- but just to a lesser degree than their more liberal countrymen. If women in the Muslim World today don't have their rights, it is not because Islam did not give them to them. The problem is that in many places alien traditions have come to overshadow the teachings of Islam, either through ignorance or the impact of Colonialization.

CD PROJECT



International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Korea has decided to make a cd in Korean Language entitled 'Life of the Last Prophet' written by Yusuf Islam. We need

your financial contribution.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send mail to muslimkorea@hanmail.net

Bank Information: Woori Bank, Account number: 214-047841-12-001, To: Irfan Jamil

산의 기능



꾸란에서 산들의 대단히 중요한 지질학적인 기능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대지위에 산들을 고정시켰으니 대지가 동요치 못하도록 함이시라” (21장 31절)

윗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산들은 땅의 충격을 예방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꾸란이 계시된 때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 현대 지질학의 발견의 결과로 최근에 들어서야 밝혀졌을 뿐이다.

이러한 발견에 의하면 산은 지각을 형성하고 있는 육중한 암판의 움직임과 충돌의 결과로 출현하게 된다. 두 암판이 충돌할 때에 보다 더 강한 것이 다른 암판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그리하여 위에 있는 암판이 언덕들과 산들을 구부러지게 하여 형성한다. 그 다음 그 밑의 층이 지면 아래로 내려가 아래 쪽으로 깊은 전충성을 형성한다. 그것은 산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부분 만큼이나 큰 아래 쪽으로 당기는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한 과학 교재에 산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산맥에서처럼 대륙이 더 두터운 곳에서 지각은 맨틀의 더 깊숙한 아래 쪽으로 침수하게 된다.’

꾸란의 한 절에서는 산의 이러한 역할이 ‘기둥’에의 비교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님이 대지를 두매 넓다랗게 두셨으며 산들을 두매 기둥으로 두었고” (78장, 6-7절)



다시 말하면 산들은 이러한 암판들의 접합부분에서 지구의 표면 위와 아래로 뻗어내려 감으로써 지각에 있는 암판들을 짊어 올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해서 산들은 지각을 고정시키고 지각이 마그마 지층위로 또는 암판들 사이로 떠 다니는 것을 막아준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산들을 나무 조각들을 함께 붙들어 매주는 못들에 비유해볼 수 있다. 산들의 이러한 고정시켜주는 기능은 과학 문헌속에 ‘아이소스타시(지각균형설)’이라는 용어로 묘사되고 있다.

현대 지질학과 지진 연구에 의해서 발견된 산들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의 극상의 지혜의 한 예로서 수세기 전에 꾸란에 계시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무슬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1살이 되는 김바울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슬람식 이름은 이스마일입니다. 제가 무슬림이 된 것은 지난 1월 28일 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무신론자로서 신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인해 이슬람을 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 그리고 사상이 있습니다.(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무정부주의 등)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치중한 나머지 정신적인 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부정하며 물질적인 평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근로 의욕의 상실과 정신적 공허감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종교로서 예를 들면 기독교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사람에 의해 변질된 것이 많아서 본래의 종교적 의미를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정신적인 것만을 추구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현실과의 괴리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정신과 물질적인 것을 조화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내세와 현실에 똑같은 비중을 두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신성한 종교이며 꾸란은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입니다. 이슬람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체제와 철학체제의 관점과는 논리적

으로 다릅니다. 이슬람은 금욕적인 인생관을 배격하며, 인간이 정신적(영적)으로 세상밖이 아니라 세상안에서 정신적(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삶에서 겪는 아픔과 괴로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슬람에서는 정신이 성장하고 고양되어 보다 높은 단계로 오를 수 있는 장소는 삶이라는 행위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슬람은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으며 남녀 모든 무슬림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슬람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며 진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당신이 무슬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가까운 성원으로 들러서 샤하다(신앙 선언)를 하시고 무슬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무슬림 형제자매 그리고 비무슬림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와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 툴라 와바라카 푸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어린이가 어떤 문제에 몰두하면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데

(Why is it that when a child dedicates herself to a subject,

She has POTENTIAL,)



한 어린이가 이슬람에
몰두하면 왜 절망적이라
하는가?

(And when a child
dedicates herself Islam

She is HOPELESS?)

프랑스에서의 이슬람

프랑스의 무슬림은 육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프랑스에는 육천이 넘는 모스크(성원)가 있는데, 수도 파리에만도 그 수효는 사십을 넘고 있다. 이것은 파리에 있는 이슬람 센터의 의장인 Sheikh al-Saghir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의 수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프랑스인들 사이에 이슬람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비무슬림들에 대한 이슬람의 매력

약 오만명의 프랑스인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로부터의 개종자들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들은 유명한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은 포함하는데,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 안무가인 Maurice Bejart,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이슬람 센터의 지도자인 전 공산당 철학자 Roger Garaudy, 전통 수니파의 지도자인 Daniel-Youssouf Lecienc, 파리의 이슬람 대학교 설립자인 Ali-Didier Bourg, Jacques-Yacoub Roty 등이 있다.



Maurice Bejart



Roger Garaudy

형식적인 개종은 이슬람으로 향한 훨씬 더 광범위한 이동에 대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표시에 불과하다. 우선 한 가지는 이슬람은 유대교나 카톨릭과는 달리 신랑과 신부의 종교가 다를 때 어느 쪽의 개종을 주장하지 않고 자녀가 무슬림으로 양육될 원칙으로 마무리한다. 아닌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날로 늘어나는 부분을 차지하는 무슬림 자녀들이 비무슬림 어머니들이나 비무슬림 아버지들에게서 태어난다.

둘째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은 이슬람 근본주의자에 대한 상당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 온당한 일이 되었다. 또한 이것은 1세기를 훨씬 넘기는 동안 유럽과 미국 문화에서 명백한 것이 되어온 종교적으로 이국적인 것에 대한 취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새로운 모형에 적합한 것이 되었으니 지식인들, 대학교수들, 심지어 성직자들조차 이슬람을 가치있고 이국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유산의 일부로 보고 있다. 크게 보아 이슬람은 프랑스에서 제2의 종교가 되었으니, 또 다른 비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세계에 대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놀랍게도 카톨릭 교회의 시인에 의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도적인 카톨릭의 지식인인 Alain Besancon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세계 종교주의의 옷을 입고 있는 제설 혼합주의이다.”

왜 카톨릭 교회가 그러한 제설 혼합주의적 경향에 굴복했을까? Besancon은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옛날의 마르크스주의에 그것을 비교하여 말한다. 현대의 프랑스와 아마 많은 유럽 지역에서 기독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혁명의 묵시록적 교회나 반 성서적 이슬람 같은 다른 종교에 의지해야만 한다. 진실로, 오늘날 프랑스에서의 카톨릭 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가 한창이었던 때 보다 훨씬 더 약한 상태에 있다. 프랑스의 카톨릭은 여러 해에 걸쳐 비단 이슬람으로부터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비카톨릭 종교로부터의 영감을 추구하여왔다. 유대교의 의식을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연구가 권장되고 있다. 개신교적 쇠신의 요소가 그대로 카톨릭 교회안에 녹아들어와 “오순절 카톨릭”이나 “카리스마적 카톨릭” 또는 “갱신된 카톨릭”으로 변화하였다. 수도원들은 힌두교나 불교의 수도원들을 다시 모델로 받아들였고, 요가와 동양적 명상이 기독교의 기도과 영적 의식 속에 섞여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종교” 즉 전반적 용어에서 기독교와 아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종교이며 엘리트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섬기는 종교이고 그 신봉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믿고 있는 종교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개신교와 유대교를 완전히 따돌렸고 이제는 프랑스에서 두 번째의 종교가 되었다. 역사가 Alain Besancon은 프랑스에서 교회에 가는 5% 미만의 빈약한 인구를 생각해보는 때에 프랑스는 오늘날 카톨릭을 실천하는 사람들 보다 무슬림들이 더 많다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수효로 재어본다면 이슬람이 언젠가는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파리 그랜드 성원

짜끄 꾸스또 대위



프랑스에서 이슬람은 여러 분야에서 유명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오고 있다.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의 수효는 벌써 100,000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카톨릭 서열에 있는 파리의 대주교에 위해서 확인되었다.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이 노동자들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들임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들 중에는 꾸스또 대위가 있는데,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수중에서의 삶에 대한 탐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슬람을 포용하는 물결이 프랑스의 명사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수중 탐험가인 꾸스또 대위는 자신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을 그의 생애중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만들어 ‘살아 있는 바다’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전세계에 TV로 방영되고 있는 영화들로 하나씩 차례로 대양의 비밀을 폭로한 꾸스또 대위는 자신으로 하여금 이슬람을 받아들일도록 실제로 자극한 것은 대서양과 지중해의 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해본 후 이미 1,400년 전에 제시된 쿠란에 그와 똑같은 현상이 언급되어있음을 목격했었다고 말했다.

꾸스또 대위는 자신이 무슬림이 되도록 야기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2년에 독일의 과학자들은 아덴만과 홍해가 합치는 바블 만담해협에서 홍해와 인도양의 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서양과 지중해의 물이 서로 섞이는지의 여부를 조사해보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는 지중해의 물을 분석하여 염분 함유도와 밀도 또 생명체를 알아냈다. 우리는 대서양의 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분석을 하였다. 그 두 바다의 물은 수천년 동안 지브롤터해협에서 서로 만나오고 있었음에 틀림없었고 염분 함유도와 밀도에 있어서 똑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여 오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와는 정반대였다. 심지어 두 물이 서로 가장 가까이 있는 곳들에서조차 각각의 물은 그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두 바다의 물이 만나는 지점에 어떤 물의 막이 생겨 두 물이 서로 섞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모리스 부까유 교수님에게 이 현상에 대해 말하자 교수님은 그것은 놀라울 것이 없는 것으로 이슬람의 성서인 꾸란 속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두 바다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나게 하되 둘 사이에 장벽을 두니 그들 각자는 침범하지 아니 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기억하겠느냐”



(꾸란, 55장 19~21절)

진실로 이 사실은 꾸란 속에 분명한 말로 쓰여있었다. 내가 이것을 알았을 때에 나는 꾸란이 '알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나는 진정한 종교인 이슬람을 선택했다. 이슬람 종교속에 내재된 정신적 잠재력은 내가 나의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겪어오고 있었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다.

이슬람은 프랑스의 두 번째 종교이다.

TIME, 2000년 2월 12일(월)

프랑스에서 유럽의 가장 큰 이슬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의 영원한 메시지를 중세기의 문화적 짐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TIME, 2002년 11월 10일(월요일)

프랑스에서 무슬림 협회가 만들어지다.

프랑스의 관리들과 무슬림 지도자들이 유럽의 가장 큰 공동사회인 오백만 무슬림들을 대표하기 위한 최초의 단체를 건립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 새로운 단체는 무슬림 종교를 위한 프랑스 협의회라고 불리울 것이며 영국의 무슬림 협의회와 맞먹는 것이 될 것이다.

BBC 뉴스, 2002년 12월 20일

오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슬림들이 프랑스에서 살고 있고 이는 그 나라의 두 번째 종교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약 1,600개의 모스크(성원)와 무슬림을 위한 예배소가 있다.

BBC 뉴스, 2003년 1월 17일

Muslims are 6 MILLIONS IN FRANCE (on a 68 million population, it represents : 10 %).

France has over 6,000 mosques, with capital Paris alone having over 40 of them. This was disclosed here by Sheikh Al-Saghir, the chairman of the Islamic Centre in Paris in an interview to the IINA. He said the number of Muslims in France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at there is good response

to Islam among the French people, adding in Paris alone there were over one lakh Muslims.

Nowadays, one thousand mosques are said to operate in France, almost all of them built or organized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Eight

of them, including the Great Mosque in Paris, are "cathedral mosques," large monumental buildings with a capacity of more than a thousand worshippers. A further hundred mosques are quite large structures, with a capacity of several hundred worshippers. The rest are small, accommodating from thirty to one hundred worshippers.



Islam's Appeal to Non-Muslims

Some fifty thousand French Muslims are said to be converts of non-Muslim origin. Their numbers include well-known intellectuals and artists, including Maurice Bejart, the world-famous choreographer who has settled for a low-profile brand of Sufism; and Roger

Garaudy, a former communist philosopher who is leader of the Spain-based International Islamic Center. Quite a few converts have achieved positions of leadership within Islamic circles: Daniel-Youssouf Leclerc, the leader of the strictly orthodox Sunni group Integrite and the only European-born member of the World Islamic League's High Council; Ali-Didier Bourg, the founder of the Islamic University in Paris (a part-time seminary rather than a university but still very influential); and Jacques-Yacoub Roty, who was rumored in the early 1990s to be the next head of the Great Mosque.



Maurice Bejart

Formal conversion is only the most visible manifestation of a much wider move toward Islam. For one, Islam (unlike Judaism or Catholicism) does not insist on conversion in a mixed marriage but makes do with the children's being

raised as Muslims. And they are; a rather significant and growing proportion of Muslim children in France were born of non-Muslim mothers or even of non-Muslim fathers.

Secondly, interest in Islam has become politically correct in France, notwithstanding a very real concern about fundamentalist Islam. In part, this reflects a taste for the religiously exotic that has been apparent in European and American culture for well over a century. But today it fits into a new paradigm: intellectuals, academics, even priests are not supposed to see Islam as something worthy and alien but as part of a common heritage. In great measure, Islam has become a second religion in France: another non-Christian faith and culture with intimate relevance for the Christian world.

Why has the church succumbed to such syncretist trends? Besancon draws a telling parallel with an earlier infatuation, that with Marxism. Christianity may be so weak in contemporary France (and probably throughout much of Europe) that it must look to other religions, either the apocalyptic church of Revolution or para-biblical Islam, to rejuvenate and survive. Indeed, the Catholic Church is far weaker in France today than it was in the heyday of communism in the years after World War II. French Catholics have over the years sought inspiration not just from Islam but from a wide range of non-Catholic religions: the study of Judaism, both Biblical and post-Biblical, is encouraged, as well as the imitation of Jewish ritual; Protestant revivalism has been cloned into the church as "Pentecostal," "charismatic," or Renouveau ("Renewal") Catholicism; monasteries are remodeled after their Hindu or Buddhist equivalents; yoga and Oriental meditation are frequently fused with Christian prayer and other spiritual exercises. But Islam as a role model is growing, for it offers the best and closest example of a "living religion": a religion that appears quite close to Christianity in some terminology,

that serves the masses and the elites alike, and whose adherents really believe in God and His law.

Islam has left Protestantism and Judaism far behind and is now the second religion of France. The historian Alain Besançon has estimated that given the meager rates of churchgoing in France (below five percent), the country now has more Muslims than practicing Catholics, which means that Islam may someday be the country's predominant religion if one measures by the number of people who practice it.



CAPTAIN JACQUES COUSTEAU

In France Islam has been spreading at a high velocity among people who have made fame in various areas.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abandoned Christianity and chosen Islam have reached one hundred thousand already. This score has been confirmed by the Archbishop of Paris, the highest Catholic rank in France.

It is noteworthy that people who have preferred Islam are not only from among workers and civil servants but also from among people renowned in every respect.

Among people who have chosen Islam is Captain Cousteau, whom the whole world closely knows for his



explorations about life under water.

As the groundswell of embracing Islam was spreading among France's universal celebrities, Captain Cousteau, the world's most eminent undersea explorer, announced that by accepting Islam he had made the most correct decision of his life.

Captain Cousteau, who has revealed the secrets of oceans one by one with the films that he made and which are being televised world over in a program sub-headed The Living Sea, said that what actually prompted him to choose the Islamic religion was, after observing that the waters of the Atlantic Ocean and the Mediterranean did not mix with each other, his seeing that the same phenomenon was written in the Qur'an al-karim which had been revealed fourteen hundred years before.]

Captain Cousteau told of the event that had caused him to become a Muslim, as follows:

"In 1962 German scientists said that the waters of the Red Sea and the Indian Ocean did not mix with each other in the Strait of Bab-ul-Mandab where the Aden Bay and the Red Sea join. So we began to examine whether the waters of the Atlantic Ocean and the Mediterranean mixed with each

other. First we analyzed the water in the Mediterranean to find out its natural salinity and density, and the life it contained. We repeated the same procedure in the Atlantic Ocean. The two masses of water had been meeting each other in the Gibraltar for thousands of years. Accordingly, the two masses of water must have been mixing with each other and they must have been sharing identical, or, at least, similar properties in salinity and density. On the contrary, even at places where the two seas were closest to each other, each mass of water preserved its properties. In other words, at the point where the two seas met, a curtain of

water prevented the waters belonging to the two seas from mixing. When I told Professor Maurice Bucaille about this phenomenon, he said that it was no surprise and that it was written clearly in Islam's Holy Book, the Qur'an al-karim. "He has let free the two bodies of flowing water, meeting together: Between them is a Barrier which they do not transgress: Then



which of the favours of your Lord will ye deny?" (Quran, 55: 19~21) Indeed, this fact was defined in a plain language in the Qur'an al-karim. When I knew this, I believed in the fact that the Qur'an al-karim was the 'Word of Allah'. I chose Islam, the true religion. The spiritual potency inherent in the Islamic religion gave me the strength to endure the pain I had been suffering for the loss of my son."

-Islam is France's second religion. (TIME, Monday, Jun. 12, 2000)

-in France, home to the largest Islamic community in Europe, an effort is in full swing to separate the eternal message of Islam from its medieval cultural baggage. (TIME, Sunday, November. 10, 2002)

-France creates Muslim council
French officials and Muslim leaders have agreed to the creation of the

first body to represent the country's five million Muslims - Europe's largest community. The new body will be called the French Council for the Muslim Religion, and will be the equivalent of the UK's Muslim Council. (BBC News, 20 December, 2002)

An estimated five million Muslims live in France - making Islam the country's second religion. There are about 1,600 mosques and Muslim prayer halls in France. (BBC News, 17 January, 2003)

이슬람의 여섯가지 믿음

1. 유일신 신앙

이슬람교는 유대교, 기독교와 함께 창조주 알라로부터 계시된 순수하고 철저한 유일신 사상의 최종 종교이다. 이슬람교에서 신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며 믿음의 근본이 되는 신앙이다. 신은 오직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알라 단 한 분 뿐이다. 따라서 이슬람은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 신격화된 인간을 결코 신성으로 믿지 않고 이를 부정함으로써 다신교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알라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알라는 유일무이하신 우주의 주인이시며 절대자다. 또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온 인류와 우주의 부양자다. 꾸란에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말하라, 알라는 단 한분이시고 영원하시며 낳지도 낳아지지도 아니하셨으니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알 이클라쓰, 꾸란 112장)고 쓰고 있다. 따라서 신격과 인격이 창조주와 피조물과 같은 주종 관계로 구분돼 인간의 신격화나 우상화가 철저하게 배격되고 있다.

2. 천사 신앙

천사란 알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이다. 선지자들에게 알라의 계시를 전한다든지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는 일을 한다. 천사는 알라의 피조물이다.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없고 알라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존재다. 지브릴(계시의 천사, 모든 천사들을 주관함), 이쓰라필(심판의 날을 담당하는 천사), 이즈라일(죽음을 담당하는 천사), 미카일(풍우의 천사), 라킵(선행을 기록하는 천사), 아피드(악행을 기록하는 천사), 리드완(천국의 문을 지키는 천사), 말리카(지옥의 문을 담당하는 천사) 등을 들 수 있다.

3. 예언자 신앙

알라의 길로 인류를 인도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선지자다. 인류의 시초이며 최초의 예언자인 아담을 비롯,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모세, 예수 등이 있으며 무함마드를 최후의 선지자로 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알라의 피조물이다.

4. 성서 신앙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침서다. 다윗의 시편과 모세의 구약, 예수의 신약, 무함마드의 꾸란을 들 수 있다. 특히 꾸란은 알라의 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시록으로 믿음과 행위의 규범서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과 사도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쓰는 다 이슬람 법의 원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꾸란은 114장 전체가 알라의 계시이고 하디쓰는 사도 무함마드의 말씀과 행위, 묵인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신의 말씀과 인간 사도의 말씀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5. 최후의 심판 신앙(부활 신앙)

인간은 사후 세계에서 알라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며 현세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 내세의 삶이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로 결정지어진다. 천국과 지옥의 분류심사는 선악의 경중에 달려 있다. 현세에서 알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만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으며, 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된다. 이 세상은 기만의 속세에 불과하다.

6. 알라의 권능, 정명(定命)을 믿는다.

알라는 절대 주권자, 관능자다.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현세의 모든 일은 알라의 뜻과 예정에 따른 것으로 어떤 고난이나 불행도 알라의 뜻이므로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정명관은 성공이나 실패, 행·불행을 당했을 때 최선을 다한 좋은 결과는 알라께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큰 알라의 보상을 기대하고 도약을 위한 받아들이는 자세다.

기도하는 기쁨 경험하기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더 나은 방식으로 올릴 수 있는 다음의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은아: 압둘 아지즈 M. 압둘 라티프 박사
옮김: Amina Zahid(곽은미)

“오 하나님,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혀를 별하지 마시옵고 당신을 가리키는 예증을 응시하는 눈을 별하지 마시옵고 당신의 사도들에 관한 하디쓰를 기록하는 손을 별하지 마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 자옥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바로 그 유명한 학자 이븐눌 자우지가 했던 기도내용입니다.

하나님앞에 우리의 약한 면을 보이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숭배의 가장 최고조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숭배의 형식으로 그 형태는 수없이 다양합니다.

무티프 이븐눌 쉬케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후에 덕에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예배와 단식도 덕이 됩니다. 또한 덕은 하나님의 손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절대 악이라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그분께 보호를 구하는 적절한 이유를 갖고 또 그분의 보호를 구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타우히드를 암송합니다. 이븐 타이미야는 일전에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실 때는, 그 종복들에게 재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종복들이 그분께 보호를 구하며 전적으로 그 분에게만 의지하게 되며 그분을 진실로 신뢰하게 합니다. 또 이만(신앙심)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며 쉬르크(다신론)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잊게 됩니다... 샤이크의 말을 인용합니다, ‘때때로 나는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욱 기도하고 싶어서, 심지어 그 분께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뒤로 밀어주셨으면 하고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데 태만한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한다해도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기도하는 느낌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믿음과 집념 없이 기도를 드린다면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을 보장해 주는 것들

-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기도할 때 그 이름들을 언급하고 그 의미를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한다 해도 너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꾸란, 16:18]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분에게만 구원하라”[꾸란, 16:53]

● 우리의 약한 면과 부족한 점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하나님만을 제외한 그 누구도 권능이나 어떠한 원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선지자들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예절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께서 기도했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위 글에 언급된 특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지자 자크리야께서는 그의 주님께 이렇게 염원하였습니다. “주여 저는 허약하여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나이다 저는 주님께 기원하여 축복받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꾸란, 19:4]; 선지자 요나께서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외쳤습니다, “실로 당신 외에는 신이 없나니 당신만을 찬미하나이다 저는 실로 죄인들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하더라” [꾸란, 21:87]. 또 우리의 선지자(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원하곤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당신 외에는 숭배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당신의 종이입니다.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악한 죄로부터 당신에게만 보호를 구합니다. 제게 내려주시 축복에 감사 드리오며 당신께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사 간청 드리옵니다. 당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나이다.”(부카리)

다음은 움마이드 칼리파였던, 압둘 말릭 이븐 마르완의 예를 들어 봅니다. 한 번은 그가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크게 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저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당신의 용서는 더욱 더 크나이다. 오 하나님 부디 당신의 자비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압둘 말릭의 연설을 듣고 있던 알 하산 알 바스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연설은 금으로 글씨를 새겨 남길 정도로 훌륭합니다.”

결국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지자(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의 전통을 성실하게 숙지하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이며 바르게 인도되는 방법입니다.

“오 하나님, 진실로 당신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며 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고 계시며 저의 내면과 외면 모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하는 일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곤궁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옵니다. 저는 당신의 자비와 도움을 얻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벌을 두려워하나이다. 오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서 제 자신의 무기력함을 스스로 알고 당신 앞에서 겸손하며 당신의 도움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나이다. 당신께 제 육체와 영혼 모두 순종하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발 저를 저버리지 마시옵고 저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은 가장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시며 가장 염원되는 분이십니다. (타바라니)

월간 소식(Monthly News)

★서울중앙성원

서울중앙성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아랍어, 목요일 하디쓰, 금요일 이슬람교리 및 배경, 토요일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서울 중앙성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전화: (02) 794-7307, 793-6908

Seoul Central Masjid

Seoul Central Masjid established Quran, Hadis, Islamic and Arabic classes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s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Seoul Central Masjid.

Date: Every Wedne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Arabic

Lecturer: Abdul Rahman Lee

Date: Every Thur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Hadith

Date: Every Fri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Miss Hilba

Date: Every Satur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Quran

Lecturer: Ali

Address: Seoul Central Masjid

732-21, Hannam-dong, Yongsan-ku, Seoul

★전주성원

전주성원에서는 매일 아스르예배 후에 이슬람교리 강좌를 개

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전주성원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62-10(561-832)

전화 : (063) 243-1483

Jeonju Masjid

Jeonju Masjid established Islamic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Jeonju Masjid.

Date: Every after a sr praying.

Topic of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Abdul Wahab Zaid

Address: 1567-10, 2-ga Inhu-dong,

Duk-jin Gu, Chonju

★파주성원

파주성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이사 예배후에는 꾸란의 해석,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파주성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 영태리 421-9(413-813)

전화:(031) 946-2110

Fax:(031) 946 2126

E-mail: pajumajid@yahoo.com

Paju Masjid

Paju Masjid established Quran tafsir Quran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Paju Masjid.

Date: Every Saturday after 1sha prayer

Topic of Lecture: Quran Tafsir

Date: Every Sunday (11:00 am)

Topic of Lecture: Teaching Quran

★부산성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609-811)

전화 : (051) 518-9991

(051) 518-9992

부산성원에서는 매월 아래와 같은 정기강좌 및 모임을 개최 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매주 토요일 오후 5:00-6:30
 - 일반인 대상 아랍어및 이슬람교리 강좌
- 매주 일요일 오전 10:30-12:00
 - 외국무슬림 대상 한글교실 운영
- 매주 일요일 오후 3:00-5:00
 -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 매주 월요일 오후 6:30-8:00
 - 일반인 대상 터키어 및 이슬람교리 강좌
- 매주 일요일 주흐르 예배후
 - 재부 인도네시아 무슬림회 우스라미팅
 - 재부 방글라데시 무슬림회 우스라미팅
- 매월 마지막 토요일
 - 무슬림가족 등산모임
- Date: Every Saturday, 17:00~18:30
 - Topic of Lecture: Arabic and Basic Islamic Studies
- Date: Every Sanday, 10:30-12:00
 - Topic of Lecture: Teaching Korean language for foreign muslims
- Date: Every Sunday, 15:00-17:00
 - Topic of Lecture: English teaching for children
- Date: Every Sunday after Zuhur Prayer
 - Meeting of Indonesian muslims
 - Meeting of Bangladesh muslims
- Every last Saturday of month family climbing
 - Address: Busan Masjid
 - 30-1 Namsan-dong, Kemjeoing-ku, Busan

★광주성원

경기도 광주군 광죽읍 역리 48-9(464-807)

전화: (031) 761-3424

광주성원에서는 금요일 합동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Address: Kwangju Masjid

48-9 Yeokri Kongju-youb

Kwangju-kun Kyung-do

Jummah Khutba start at 13:00

★안양성원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618-132

전화 : (031) 444-7757 430-828

Daily Program

-After Asr prayer Hadis lecture

-After Facr Prayer Teaching Quran

Weekly Program

-Every Saturday night at 10:15?11:00 pm, speech about Islamic life

-Every Sunday after facr prayer teaching how to prayer, udu, azan etc.

Monthly Program

-Every month last saturday night,

- 9:00~9:30 pm, question-answer meeting

-10:15~11:15 pm, teaching Quran

- 11:15~11:35 pm, lecture about Islamic life

-Kiamul Lail(Salatul Tahazzut)

-Discussion about almighty Allah

-After Facr prayer teaching Quran

-After Zohr prayer hadis studies

-After Asr prayer discussion about Islam

Address: Anyang Masjid

618-132, Anyang-5-dong, Anyang, Kyunggi-do

★제주임시성원(Jeju Masjid)

제주시 노형동 939 정한오피스텔 1215호(690-802)

전화: (064) 712 1215

★자미아 마스지드 우스만

이슬람 센터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2-6번지

전화:(053) 523-2171

JAMIA MASJID USMAN

ISLAMIC CENTER TAEGU

202-6, Chuk Chan-dong, Dal Seo-gu, Daegu

Tel: (053) 523-2171

contents

이슬람 사상의 몇 가지 기본 특성 (III)	2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0
이슬람을 배웁시다		프랑스에서의 이슬람	11
'알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셨다'	4	Muslims are 6 MILLIONS IN FRANCE	14
이번 달의 질문	6	이슬람의 여섯가지 믿음	17
Question of Month	7	기도하는 기쁨 경험하기	18
꾸란과 과학 '산의 기능'	8	월간 소식(Monthly News)	20
한국의 무슬림	9		

● 2003년 5월 예배시간표 (Timetable for Prayers May 2003)

Date	Day	Fajr	Sunrise	Zuhr	Asr	Maghrib	Isha
May 1	Th	4:00	5:38	12:29	16:16	19:20	20:52
2	F	3:59	5:37	12:29	16:16	19:21	20:53
3	Sa	3:57	5:36	12:29	16:16	19:22	20:54
4	Su	3:56	5:35	12:29	16:17	19:23	20:55
5	M	3:55	5:34	12:29	16:17	19:24	20:57
6	Tu	3:53	5:33	12:29	16:17	19:25	20:58
7	W	3:52	5:32	12:29	16:18	19:26	21:00
8	Th	3:49	5:30	12:28	16:17	19:26	21:00
9	F	3:48	5:29	12:28	16:17	19:27	21:01
10	Sa	3:47	5:28	12:28	16:17	19:28	21:03
11	Su	3:46	5:27	12:28	16:17	19:29	21:04
12	M	3:44	5:26	12:28	16:18	19:30	21:05
13	Tu	3:43	5:25	12:28	16:18	19:31	21:07
14	W	3:41	5:24	12:28	16:18	19:32	21:08
15	Th	3:40	5:23	12:28	16:18	19:33	21:09
16	F	3:39	5:23	12:28	16:18	19:33	21:10
17	Sa	3:38	5:22	12:28	16:19	19:34	21:12
18	Su	3:36	5:21	12:28	16:19	19:35	21:13
19	M	3:35	5:20	12:28	16:19	19:36	21:14
20	Tu	3:34	5:19	12:28	16:19	19:37	21:15
21	W	3:34	5:19	12:29	16:20	19:38	21:17
22	Th	3:32	5:18	12:29	16:20	19:39	21:19
23	F	3:31	5:18	12:29	16:21	19:40	21:20
24	Sa	3:30	5:17	12:29	16:21	19:41	21:21
25	Su	3:29	5:16	12:29	16:21	19:42	21:22
26	M	3:28	5:16	12:29	16:21	19:42	21:23
27	Tu	3:27	5:15	12:29	16:21	19:43	21:24
28	W	3:26	5:14	12:29	16:21	19:44	21:25
29	Th	3:25	5:14	12:29	16:21	19:44	21:26
30	F	3:24	5:13	12:29	16:21	19:45	21:27
31	Sa	3:24	5:14	12:30	16:22	19:46	21:29

[알림]

이 잡지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거나 또는 이 잡지의 발전을 위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mail: muslimkorea@hanmail.net

아름다운 이슬람

무슬림 월보(MUSLIM MONTHLY MAGAZINE)

NO. 3 히즈라 씨퍼르 1424 · 서기, 2003. 4. 1

발행처: 한국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



한국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

110-64 서울광화문 유채국 사서함 147번

Homepage: <http://www.muslimkorea.net> E-mail: muslimkorea@hanmail.net

INTERNATIONAL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KOREA
K.P.O. BOX 1476 SEOUL, SOUTH KOREA

● 이 예배시간표는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안양, 수원, 인천, 의정부, 광주 등 경기도 지방과 전라북도의 전주 등에서 허용되며 부산시는 이 시간표보다 5분이나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는 2분정도 후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가까운 성원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This time table for Gyeonggi-do Province like Seoul, Incheon, Anyang, Uijeongbu, Gwangju and also,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and Jeollanam-do Provinces are same. But Busan city is 5 minutes before this time and Jeju Island is about 2 minutes after this times. For further more information, call nearest mosque.

● The direction of Qiblah in Korea approximately 260° Latitude West.

● Adhan on Jumaah will be called at 13.00 o'clock.



● 책이 필요하신 분은 우편비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발행처: 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